

경제

2012 새해에는 ⑭ 최종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미·일·유럽 기업 적극 유치”

“광양·울촌·신덕 등 광양만권 5개 지구 개발을 착실히 추진하고, 직원들을 미국·유럽·일본 등에 파견해 외국기업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투자 전담관 초청 투어

오션비즈 사업 본격화

이러 물동량 창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광양항 배후단지에는 곡물·건설 산업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오션비즈 프로젝트 투자 유치를 본격화한다.

최 청장은 부족한 용지문제를 해소 위해 산업단지 조성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광양만권경제청은 광양지구(1만5222km)와 울촌지구(2만7877km), 신덕지구(3만1611km), 화양지구(9989km), 하동지구(1만2277km) 등 5개 지구 20개 단지 10만km 규모의 산업단지 및 택지지구를 12조2796억 원을 투입해 개발하고 있다.

최 청장은 “신대지구에 교육·의료·관광레저 산업 관련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관계기관 협업체를 구성하는 등 공을 들이고 있다”면서 “올해 외국대외 유치가 가시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국내 6개 경제청과 지식경제부 간 공동 홍보체제를 구축해 국내외 이미지 마케팅 강화하고, 광양만권경제청의 인지도 확산을 위해 해외 유수의 언론에 투자환경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최 청장은 순천 출신으로 서울대 조선공학과를 졸업했다. 1978년 공직에 입문해 광주 동구청장, 대통령 공직기강비서실 행정관, 광주시 행정부지사 등을 역임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광주 아파트 67%가 1억원 이상

14만4909가구...5년새 2배 늘어 전남은 45.5%로 4만9268가구

광주지역 아파트 중 67%가 1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2년 동안 광주지역 주택시장이 활발히 움직이면서 5년사이에 1억원 이상 아파트가 2배가량 늘었다.

26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올해 1월 현재 광주지역 아파트 21만5735가구 중 1억원 이상 아파트는 14만4909가구로, 67.1%를 차지했다. 평균 매매가는 1억3740만원이었다.

광주지역의 1억원 이상 아파트는

지난 2008년 1월 7만9527가구로 전체의 39.1%에 불과했다. 2009년에는 8만3605가구(39.8%), 2010년 8만9004가구(41.6%), 9만4779가구(42.9%)로 꾸준히 증가했지만 50%를 넘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전세 품귀 현상까지 보이며 아파트 가격이 들쭉했다. 이로 인해 1억원 이상 아파트는 1년새 5만여가구가 늘면서 10만가구를 훌쩍 넘어 14만4909가구를 기록했다. 비중도 42.9%에서 67.1%로 24.2%포인트

급증했다. 전남지역의 1억원 이상 아파트는 4만9268가구로 전체(10만8267가구)의 45.5%로 나타났다.

평균 매매가는 1억49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8년 1월 1만7756가구(전체의 17.0%), 2009년 2만8399가구(26.9%), 2010년 3만1213가구(29.1%), 2011년 3만8551가구(35.6%)로 증가세를 보였다.

부동산써브 관계자는 “광주지역의 경우 최근 몇 년간 아파트 분양이 없었던 데다, 지난해 광주유니버시아드 대회 선수촌 건립에 따른 업무·화정 주공아파트의 대규모 이주 등으로 전세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아파트 매매가가 급등하게 됐다”며 “혁신도

시 등 개발 호재로 실수요자뿐 아니라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돼 당분간 부동산 상승세는 지속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지방 아파트 286만8천945가구 중 214만9천868가구가 1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에서 1억원 이상 아파트 수가 200만 가구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세 지방 아파트 중 1억원 이상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8년 52.5%에서 올해 74.9%로 급증 뒀었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이 44만4641가구로 가장 많고, 대구 31만2177가구, 경남 27만6597가구, 대전 20만6730가구 등의 순이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까악~ 승기오빠다” 삼성전자는 26일 광주시 북구 두암동 삼성 디지털프라자 동광주점에서 ‘지필 모델 이승기 팬사인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광주지역 최대 규모(약 300명)의 삼성 디지털프라자 동광주점 오픈과 지난해 지필 이삭 김치냉장고의 히트상품 석권을 기념하고, 고객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마련됐다. (삼성전자 제공)

호텔신라 제과·커피 사업 철수

커피숍과 빵집 등 재벌 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근희 삼성전자 회장의 장녀가 이끄는 호텔신라가 제과·커피 사업 철수를 결정했다.

이근희 회장까지 나서 경주 최 부자의 예를 들며 상생을 강조한 가운데 내려진 결정으로, 다른 재벌 기업의 사업 철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호텔신라는 자회사 ‘보나비’가 운영 중인 커피·베이커리 카페인 ‘아티제’ 사업을 철수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호텔신라는 “대기업의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사회적 의무에 부응하고 경쟁력을 적극적으로 실천한다는 취지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아티제에 근무 중인 종업원의 고용을 호텔신라로 승계할지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

아울러 호텔신라가 조리부 등을 제공해온 ‘아티제 블랑제리’ 지분 10%도 정리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방식은 추후 결정한다. /연합뉴스

1월 경상수지 ‘적자’ 위기

여행 급증·수출 감소·환율 강세 ‘삼중고’

경상수지 흑자 행진에 급제동이 걸렸다. 무역수지와 서비스수지가 동반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 때문이다.

26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입이 320억3200만달러로 잠정 집계돼 작년 같은 기간보다 19.8%(52억8400만달러) 급증했다. 수출은 1년 전보다 5.9%(16억1600만달러) 늘어난 291억달러에 그쳐 무역수지가 29억32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달 같은 기간보다 수입이 9.2%(26억9000만달러) 늘었지만, 수출은 2.3%(6억8000만달러) 줄었다.

설 연휴 이후 월말까지 수출이 수입을 30억달러 이상 웃돌지 못하면 무역수지가 2010년 1월 이후 2년 만에 적자를 기록할 개연성이 있다.

무역수지와 함께 경상수지를 구성하는 서비스수지는 흑자 규모가 작던 9월 7100만달러에서 11월 3억5700만달러로 늘었으나 올해 1월에는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졌다.

설 연휴 국외 여행객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설 연휴 이후 월 말까지 기업의 조

업입수가 적고 국제 유가가 오른 것도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두바이유 현물가격은 배럴당 110달러 산에서 고공행진하고 있다.

유가 상승세는 세계 5위 원유 생산국인 이란과 서방의 긴장, 중동·북아프리카(MENA) 등 주요 산유국의 정정 불안 탓이다.

원·달러 환율이 월 초 1160원대에

서 최근 1120원대로 떨어진 점도 악재다.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 통상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외국여행이 늘어난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지난 16일 1154.70원을 기록하고서 5거래일 연속 하락해 25일 1125.9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연합뉴스

공공기관 고졸 2350여명 채용

올해 공공기관에서 고졸자 2350여 명이 채용될 전망이다. 전체 신규 채용 1만4600명의 16% 수준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리 배포한 ‘열린 고용 및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기관 워크숍’ 기초발제문 보도자료를 통해 26일 이같이 밝혔다.

공공기관 워크숍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다. 주요 127개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국무총리, 고졸 취업자, 청년창업자 등이 참여한다.

박 장관이 공개한 신규 고졸 채용 비중은 정부의 올해 목표인 20%에

못 미친다. 그러나 경영실적을 평가 받는 주요 공공기관 122곳이 올해 신규 인력의 22.6%를 고졸자로 채용할 예정이다.

한국전력공사는 234명(30.7%), 한전기술은 260명 뽑아 고졸 채용 규모가 가장 컸고 신규 채용 대비 비율도 33.8%로 높았다.

LH는 올해 대학생 전세주택을 1만호로 늘리고, 석유공사는 알뜰주유소를 올해 700개에서 내년 980개로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이 불가 인접에도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이태리가구 쇼핑몰 50%

www.100424.com (천사24닷컴 2월10일 까지 임시오픈) 신상품 입점 : 100~300만원대 식탁/좌탁, PC책상, 거실TV장



- 1. 베로나 유화꽃식탁 4인세트 쇼핑몰가 20% 295만원 최종가=50%
2. 베로나 유화꽃좌탁 쇼핑몰가 20% 180만원 최종가=50%
(확장형 160+40+40x85cm 양쪽각 40cm 확장이 됩니다. 100% MADE IN ITALY)

홍스케이스 100424.com 1899-0240 동구 장동 58-15 장동로터리 홍스케이스 가구빌딩

홍은 수입원/직수입→도매가 판매 서랍안이나 가죽이 역한 냄새가 나면 독성있는 중국산입니다. 전국 고급가구의 90% 이상은 중국산입니다.(수입신고서 확인) 이태리가구 전문 빌딩 400평 매장

현대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후 24년째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물건과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항상 신속하고 친절하며 책임감을 갖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히 구하는 물건 (매매나 임대)

- <건물 구함>
■ 일반 상가 건물 : 3억에서 50억
■ 모텔 및 목욕탕
■ 고시원
■ 다가구주택 (원룸, 투룸, 쓰리룸)
■ 창고와 공장건물
<토지 구함>
■ 지역 : 광산구 도천동 하남동 장수동
■ 면적 : 200평~300평, 용도지역 : 자연녹지, 용도 : 주차장
■ 창고용도 300평정도 대형차량진입가능지역 광주시내 전역
<모텔 매매>
■ 서구 객실20개 대출42천 매도가 8억5천 만원
<상무지구 상가건물 매매>
■ 매도가 30억 보증금7억 임대료 1400만원
■ 매도가 45억 보증금6억 월2900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중심상업지역 178평, 360평 매대가 협의 후 결정
■ 자연녹지 353평 30M 도로 접, 농지전용완료, 매대가 협의 후 결정
<토지 매도>
■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지역 2397m2(725평) 평당95만원
■ 공장 창고용도로 적합
■ 비어동 자연녹지 11,463m2(3,468평) 평당 70만원
■ 광산구 임동 계획관리지역 28,845m2(8,726평)매도가 21억원
<시외 매도물건>
■ 물류창고부지 : 장성군 황룡면, 장성IC에서 2.5km 계획관리지역, 3200평 평당45만원 농지전용 건축허가 필
T. 062)371-1900, 010-2006-0115
삼우 우리병원에서 50m지점 www.85858949.co.kr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다와옥션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 (법원인가) 임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 다가구주택
· 북구 문흥동 3층다가구주택 대지60평 건평95평
감정가2억4천만 최저가1억7천만
공장및농가시설
· 무안군 해제면 공장 대지600평 건물330평
감정가7억 최저가1억4천만
· 화순군 능주면 목장용지 대지1700평 농가시설760평
감정가5억2천만 최저가2억6천만
전원주택
· 담양군 봉산면 단독주택 대지382평 건평220평
감정가1억4천만 최저가1억
· 나주시 남평면 단독주택 대지380평 건평40평
감정가7천만 최저가5천만
근린주택
· 광산구 비어동 상가및다가구 대지50평 건물123평 4층건물
감정가2억4천만 최저가1억7천만
토지매매
· 화순군 도곡면 도곡은천방향 4차선도로변 관리지역
농지1500평 매매 평당50만(조정가)
· 담양군 남면 구산리 향원당향방병원부근 대지224평
관리지역 매매 평당50만(조정가)
광주 남구 월산동 구.서부경찰서 사거리
T. 010-4911-4989 FAX. 062-226-3607

대인동심일부동산

좋은 지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점
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
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
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
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이었던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시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
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이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FAX)223-1772 ☎011-602-2532
(광주광역시 남평면, 대인동 소방서 건너편)